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7호 【루게 제23414호】 주체100(2011)년 4월 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도춘동지,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꿈결에도 뵈고 싶던 어버이장군님을 또다시 모시는 경사에 접한 영광의 땅 자강도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

있었다. 올해에 인민생활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천한 기세로 대고조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선군의 나날들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자강도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생산지령실, 전기로, 액체산소분리장 등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강도제련소는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의 하나이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의 류산생산공정과 액체산소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기로와 전로를 각각

1기씩 증설하여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함으로써 2년사이에 유색금속생산을 무려 2.4배로 끌어올리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대폭 낮추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시설비료로 장비된 전기로와 전로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쇠물폭포와 새로 꾸러진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보시고 제련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짧은 기간에 자랑할만 한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제련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업무를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기술개진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 새로운 생산기술공정들을 확립함으로써 유색금속생산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전변은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발전에 있다는 원리를

다시금 힘있게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제련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자기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이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만든 여러가지 일용필수품들을 보시고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인민적부무정신을 칭찬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실태를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기업소에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에게 제일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회관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기업소의 로동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 문화거점을 마련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내부장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수도의 극장에 못지 않는 훌륭한 문화회관을 자체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문화회관에 꾸러진 화면반주음악실에서 노래반주기계를 리용하여 부르는 로동자들의 노래를 몸소 들어주시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자강도제련소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최근년간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는 기업소일군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있게 진행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제련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철저히 필요한 유색금속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하여서는 제련소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능력확장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제련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제련의 실수

를 무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제련소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서는 련관된 광산들에서 질 좋은 정광을 더 많이 제련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2009년 2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을 종전에 비해 1.3배로 장성시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특히 다이아생산을 국산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0여종의 다이아를 새로 개발하였으며 최첨발전소건설장,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다이아를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형직장과 완성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오늘의 이 자랑스런 전변을 안아 오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지난 시기 수많은 각종 다이아들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특산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여러차례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과정에 기업소가 숨죽은 공장으로부터 기운차게 돌아가는 공장으로, 고무냄새가 나던 공장으로부터 맑은 공기가 흘러넘치는 공장으로 일신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전변은 그 어떤 시련과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려는 우리 인민의 백철 불굴의 위대한 정신력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료전기재의 급격한 장성으로 하여 다이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철저히 필요한 다이아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 3 면 으 로 계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생 산 을 높 은 수 준 에 서 정 상 화 하 고 있 는

## 자 강 도 내 공 장 , 기 업 소 들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 2 면 에 서 계 속

특히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 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다이아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공장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신을 동을 활발히 벌려 든든하고 질긴 다이아를 생산해냄으로써 압록강다이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자재를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합성고무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

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다이아의 주원료인 고무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에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어있고 로동계급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이에 맞게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다이

아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다이아를 더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로동자들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며 그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또다시 찾아오시여 자기들을 따듯이 고무해주시고 비약의 활로를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영광을 지닌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유창동지와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를 비롯한 도의 책임일꾼들, 강계 시내 공장, 기업소의 책임일꾼들, 선군시대의 근로자들과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단은 설화와 합창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내》,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녀성독창 《우리 수령님》, 《우리 머느리》, 녀성민요4중창 《장군님 꽃피우신 내 조국아라요》, 녀성4중창과 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녀성민요독창 《비날론 삼천리》, 혼성2중창 《우리 집사람》, 합창 《발걸음》, 《최고사령부 병기창 되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자강도에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시대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을 보면서 아버지장군님을 따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치며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총공격을 과감히 벌려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열정과 광만이 흘러넘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예술창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견결한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예술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형상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진지한 창작태도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것이 바로 주제예술의 기본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자강도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며 따뜻한 손잡이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4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6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주체적인 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공화국의 강성변역을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화환 진정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4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6일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화환의 명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친위전사의 숭고한 귀감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통성변역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혁명렬사들의 넋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조선중앙통신】

##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분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신문이 글 게재

태양절기념토론회가 네팔, 프랑스에서 3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민족민주당,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체연구소, 선군정치지지회, 프랑스주재 및 선군사상연구소 등 해당 나라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 전승업적을 열렬히 격찬하고 그이를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보다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분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네팔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불굴불타운동의 강화발전예 쟁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언제나 잊지 않으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방식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석의 생전의 넋원이었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어 조선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프랑스주재 및 선군사상연구소 책임자 장 마리 람브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될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분은 바로 김일성주석이시다.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를 김일성조선으로, 자기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부르고있는 것은 주석께서 쌓으신 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고 불멸하기때문이다.

조선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필승불패의 보검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분도 다름아닌 김일성주석이시다. 주석의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

가신다. 조선의 현실에서 주석의 혁명력사는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조선인민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석을 잊지 못하며 길이 흠모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신문은 《불패의 군사강국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이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될것수 있게 한 근본담보이다.

그이께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이 차던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 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자위적군사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시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3월 25일부는 《주체사상은 승리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문은 《인민적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민주중

심의를 특색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놓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조선인민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석을 잊지 못하며 길이 흠모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신문은 《불패의 군사강국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이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될것수 있게 한 근본담보이다. 그이께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이 차던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 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자위적군사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시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3월 25일부는 《주체사상은 승리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